체력 강화에 자기개발까지 숨겨진 끼·재능 대방출

‘청년DREAM 육군드림’ 시상식
229개 팀 참가 최종 32개 팀 수상

16일 열린 ‘제12회 청년DREAM 육군드림 시상식’에서 수상자들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육군 제공

육군이 장병들의 자기개발과 전투력 향상을 지원하는 대표 프로그램인 ‘청년DREAM 육군드림’의 전반기 일정을 마무리하고 우수 참가자들을 격려했다.

육군은 16일 경기 광명시 L7 바이 롯데호텔에서 장희열(소장) 인사참모부장 주관으로 ‘제12회 청년DREAM 육군드림 시상식’을 개최했다.

‘청년DREAM 육군드림’은 장병들의 생산적인 군 복무 여건 조성과 자기개발, 전투력 향상을 위해 육군이 운영하는 대표 프로그램이다. 이번 대회에는 총 229개 팀 2556명이 참가해 지난 2월부터 4개월 동안 열띤 경쟁을 펼쳤으며, 최종 32개 팀 298명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대회는 드림배틀, 드림뽐뿜, 헬스뽐뿜 등 5개 부문으로 진행됐다. 부대별 동아리활동과 우수 실천사례를 영상으로 소개하는 ‘드림배틀’에서는 수도기계화보병사단 기갑수색대대가 대상을 차지했다. 이봉수(중령) 대대장은 “봉사활동과 러닝 등 다양한 동아리활동으로 전투력 향상은 물론 전우애를 다지고 있다”며 “앞으로도 활기찬 부대문화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모집 홍보와 건강한 생활습관, 인성교육 콘텐츠 등을 영상으로 제작해 경쟁하는 ‘드림뽐뿜’에선 3공병여단 도하중대가 대상을 수상했다. 도하중대는 부사관 지원을 ‘군인으로서 보람과 미래 설계를 위한 선택’으로 표현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장병들의 체력 증진과 강인한 육군상을 보여 주는 ‘헬스뽐뿜’은 대회에서 가장 높은 관심을 끌었다.

본선에는 117개 팀 1416명의 장병이 참가해 100일간 기초체력과 전투체력, 보디빌딩 분야를 집중 연마했다. 참가자들은 지난 5월 특수전사령부에서 이뤄진 현장평가를 통해 기량을 겨뤘으며, 최종적으로 30기갑여단 쌍용대대가 대상을 안았다.

이 밖에 동아리활동 우수 부대는 1보병사단 쌍용여단 돌격대대, 자기개발 우수 부대는 수도방위사령부 청용대대가 각각 선정됐다. 박상원 기자

포병부대 질적 대비태세 확립 위한 개선안 논의

육군2군단, 임무수행 역량 강화 토론회
훈련체계 개선 등 효율화 방안 공유

육군2군단이 16일 개최한 ‘포병부대 임무 수행 역량 강화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의견을 공유하고 있다.

육군2군단이 포병부대의 전투준비태세 강화를 위해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는 소통의 장을 마련했다.

2군단은 16일 정유수(중장) 군단장 주관으로 ‘포병부대 임무 수행 역량 강화 토론회’를 했다. 이번 토론회는 포병 장병들이 임무 수행과정에서 겪는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질적 대비태세 확립에 필요한 실질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고자 추진됐다.

토론회에선 비무장지대(DMZ) 작전대기포 운용, 대포병탐지레이다 운용, 포병 사격훈련 여건 보장 등 주요 현안을 중심으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참석자들은 △105㎜ 작전대기포 임무수행체계 개선 △155㎜ 즉각대기포 부대 운영·작전시설 개선 △대포병탐지레이다 운용 효율화 △포병 사격훈련 여건 보장방안 등을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105㎜ 포병대대는 작전대기포 운용과정에서 발생하는 불필요한 행정업무를 줄여 장병들의 임무 피로도를 낮출 수 있는 방안을 건의했다. 155㎜ 즉각대기포 부대는 유개호 포상과 사격지휘소 등 작전시설 개선 필요성을 제기했다.

대포병탐지레이다 운용 부대는 임무 수행과 교육훈련을 병행할 수 있도록 교대주기 개선방안을 제안했으며, 포병부대들은 사격훈련 관련 행정절차 개선으로 훈련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을 공유했다.

정 군단장은 “폭염에도 완벽한 작전태세 유지를 위해 헌신하고 있는 장병들에게 감사한다”며 “적의 어떠한 위협에도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해 포병부대의 전투준비태세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2군단은 이번 토론회에서 도출된 개선과제를 상급부대와 협조해 단계적으로 보완·발전시켜 포병부대의 임무 수행 여건과 작전 수행력 향상에 지속적으로 힘쓸 계획이다. 박상원 기자/사진=부대 제공

“장병들 미래 준비하는 기회 되도록 적극 지원”

육군1기갑여단, 일·깨·움 콘서트
장기자랑·선물 전달식 등 다채

육군1기갑여단이 17일 개최한 ‘일·깨·움 콘서트’에서 천둥대대 밴드동아리 썬더사운드가 공연을 하고 있다. 사진 제공=오원택 중사

육군1기갑여단이 장병들의 꿈과 열정을 펼칠 수 있는 무대를 마련했다.

1기갑여단은 17일 여단 홍성태 체육관에서 건전한 병영문화 조성과 자기개발 여건 마련을 위한 ‘일·깨·움 콘서트’를 개최했다.

행사는 장병들이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고 미래 인재로 성장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기획됐으며 ‘장병 장기자랑’ ‘선물 전달식’ ‘문화예술단체 순회공연’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특히 행사에서는 육군본부 주관 ‘제12회 청년DREAM 육군드림’에서 최우수상을 받은 천둥대대 밴드동아리 ‘썬더사운드’가 특별공연을 선보여 큰 호응을 얻었다.

썬더사운드의 활약은 부대가 추진해 온 장병 자기개발 지원정책의 대표적인 성과로 평가받고 있다.

여단은 장병들이 일과 후에도 자신의 재능과 잠재력을 개발할 수 있도록 영내 합주실 등을 조성해 자기개발 여건을 보장하고 있다.

노정우 중사는 “이번 공연을 준비하며 큰 성취감을 느꼈다”며 “공연이 장병들에게 새로운 목표와 꿈에 도전할 수 있는 동기부여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문창원(소령) 정훈참모는 “장병들이 국방의 의무를 다하는 동시에 자신의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게 부대의 역할”이라며 “앞으로도 장병들이 군 복무를 통해 한 단계 더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문화예술활동과 자기개발 기회를 제공하겠다”고 전했다. 박상원 기자